

제목: 새벽에 성전에 들어가서

본문: 행 5:17-25

시작찬송가: 252(통184), 197(통178), 191(통427)

현금찬송가: 200(통235), 199(통234), 95(통82)

12-16절의 말씀은 사도들의 손을 통해 표적과 기사가 일어났을 때 많은 사람이 모여들었음을 전합니다. 이어지는 오늘 본문은 대제사장과 사두개인들이 그것을 보고 “마음에 시기가 가득하여”져서 사도들을 잡아 옥에 가두었다고 말합니다.(17-18) 존경받아 마땅한 품성을 지녀야만 할 최고 종교지도자와 성직자들이 종교적인 명분이 아니라 “시기심” 때문에 사도들을 꺾박하였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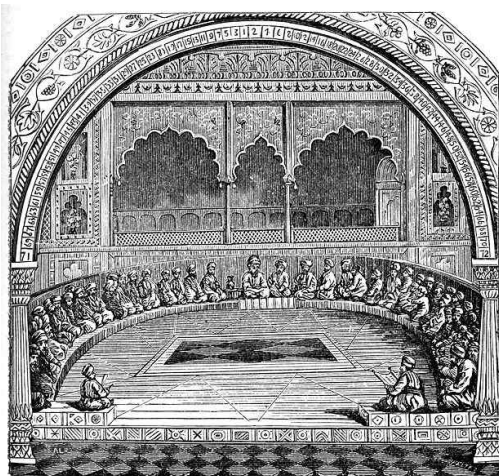
하나님을 섬겨야 할 대제사장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도들을 시기심 때문에 옥에 가두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밤에 천사를 보내 사도들을 옥에서 꺼내시고는 그 천사로 하여금 “가서 성전에서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는 명을 전하게 하셨습니다.(20) 사도들은 그 명을 곧바로 실행에 옮깁니다. 그 밤으로 성전으로 향하여서는 “새벽에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명하신 생명의 말씀을 가르쳤다고 오늘 본문은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21)

사도들이 성전에서 생명의 말씀을 전하고 있을 때,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하고 있는 사람들은 이른바 <산헤드린>이라고 불리는 공회를 소집하고는 사람을 옥에 보내 사도들을 잡아오라고 명하였다가 사도들이 없어졌음을 알고 당황합니다.(24) <산헤드린>은 성전의 북쪽 벽을 이루는 돌들을 쪼아서 만든 <쪼인 돌들의 방 chamber of hewn-stones>이라는 곳에서 열렸는데 이 방의 반은 성전 안쪽에, 다른 반은 성전 바깥쪽에 위치하고 있었습니다. 성전의 안쪽을 향하여 앉아 주님께 영광 돌리는 일에 마음을 쓰지 않고 성전의 바깥을 향하여 앉아서 인기를 좇고 권세를 좇다가 시기심에 휩싸이면 하나님 말씀이 자기 옆에서 울려 퍼져도 듣지 못합니다. 대제사장이라고 할지라도 말입니다. “오직 주님”의 신앙이 늘 새로워야 합니다. 그 신앙을 위해 성도는 새벽부터 성전에 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자리에 서거나 혹은 그 말씀을 듣는 자리에 서야 합니다. 성도라면 누구나 새벽성전을 사모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1. 주님을 높이는 일에서 마음이 멀어지면 누구나 오늘 본문의 대제사장이 되고 사두개인이 됩니다.

그들 마음을 채운 것은 인기와 권세에 대한 욕망이었습니다. 그 결과 그들은 사도들을 향한 “시기심”에 사로잡혀 사도들을 옥에 가두었습니다. 대제사장 무리가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넘겨주고 십자가형을 요청한 것도 “시기심” 때문이었습니다. 빌라도조차도 그 사실을 알았습니다.

마27:18(=막15:10) 이는 그가(빌라도가) 그들의 시기(猜忌)로 예수를 넘겨 준 줄 앎이더라.



<고대 유대 산헤드린 백과사전>(1883) 속의

<산헤드린> 회의 상상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우두머리 격인 베드로를 특별히 여겨 “그의 그림자”까지 중히 여겼습니다(15). 그런데도 사도들은 시기하지 않았습니다. 모두의 마음이 주님께만, 주님을 높이는 일에만, 향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시기심”으로 인해 예수님을 죽이려고 “거짓 증거”를 찾기로 한 것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산헤드린>에서입니다. (마26:59) <산헤드린>의 주요한 기능은 정치적인 의사결정과 사법적인 판결을 내리는 것이었는데, 오늘 본문에 보이듯이 그 의장이 대제사장이고 또 회의장의 반쪽이 성전에 위치하였던 것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을 좇아서 이루어져야만 한다는 믿음에 따른 것이었다고 <탈무드>는 이야기해 줍니다. 그러나 종교적인 원칙이 성도를 자동적으로 경건한 사람으로 만들어 주는 것은 아닙니다. <산헤드린> 공의회에 모인 대제사장과 그의 무리들은 예수님 때에도 그랬듯이 오늘 본문에서도 “시기심”을 이기지 못해 사도들을 옥에 가두었던 것입니다.

마음이 성전을 향해야만 합니다. 성전에 계신 주님을 높이는 일에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시기심에 휩싸이지 않고 성도다운 삶을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베드로 한 사람의 손이 아니라 “사도들”의 손을 통해 표적과 기사를 주셨음에도

2. “오직 주님”의 신앙으로 새벽 성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들어야 합니다.

제사장들과 사두개인들은 사도들에게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고 경고한 바 있습니다.(4:18) 사도들이 그 명을 어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예수님을 전했을 때 그들은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습니다.(5:18)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들은 천사가 옥에서 풀어주자마자 성전으로 가서 새벽에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가르쳤습니다.(5:22) “오직 주님”의 신앙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직 주님”의 신앙을 지닌 성도는 주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성전을 새벽부터 사모하기 마련입니다.

시119:148 주의 말씀을 조용히 읊조리려고 내가 새벽녘에 눈을 떴나이다.

3. 밤부터 주의 은혜를 사모하고 그 은혜를 경험해야 은혜의 새벽을 열 수 있습니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창1:5) 세상의 날은 아침으로 시작하지만 성경적 하루는 아침이 아니라 저녁으로 시작합니다. 안식의 저녁이 노동의 아침에 우선하는 것, 은혜가 율법에 우선하는 것이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에 더하여서 은혜의 밤이 있어야 큰 은혜의 새벽도 열 수 있음을 가르쳐 줍니다. 새벽성전을 사모하는 성도는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저녁시간을 잘 쉬며 잘 보내야 합니다. 옛 성도들은 하나님을 찬양함으로 밤을 보내고는 했습니다.

시134:1-2 보라 밤에 여호와와 성전에 서 있는 여호와와 모든 종들이 여호와를 송축하라
성소를 향하여 너희 손을 들고 여호와를 송축하라

오늘의 한마디 : 밤부터 새벽성전을 사모하게 하소서!

- | |
|---|
| <ol style="list-style-type: none">1. 당회장 목사님의 목회사역과 영육간의 강건하심을 위하여.2. 새 성전 건축을 위하여.3. 구제역을 그치게 해 주시기를 위하여.4. 3월 1일-5일에 있을 특별새벽집회와 새벽기도 컨퍼런스를 위하여.5. 공동기도제목들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이루어지도록. |
|---|

명성교회